

작품 내용

제 목	사본(寫本)의 사본(私本)들
내 용	도서관에서는 도벽을 씹는 아이들의 양잠을 했다 서로의 일기를 베껴쓰는 습관을 그만두라고 난시를 가진 사서가 아이들을 다독이다 말았다 번데기가 혈령한 아이들은 소라게 같이 다른 아이들의 고치를 뺏어 입을 줄만 알았다 자신만의 번데기를 엮을 줄 모르는 손가락들에게 그녀는 가끔 원본들의 젖은 눈두덩이를 닦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어디선가 흠쳐온, 오목한 모음들의 누에고치를 위해서. 서로의 글자를 씹고 따라하다 곧 열람실의 복사기들이 고장났다 아이들은 놀라 모음과 자음을 떼어 붙이며 울었다 부끄럼 없는 저작의 기저귀에 매달려 실을 토해내는 법을 몰랐다는 변명을 했지 누군가 자신이 원한 일기가 아니라며 사서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뼈가 없는 문장을 만들면 녹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껍데기 채 흠친 탄생들을 자꾸만 꿀여먹는 아이들은 복사기 위에서 두 뺨이 하얗게 질려간다는 소문 혈령해진 누에고치들 사이로 흠쳐온 한글들이 떨어졌다